

“어디로 튈지 모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

‘당혹사’ 변영주 “세번째 시즌도 기대돼”

“음모론이 세상을 망친다”고 생각한 다는 영화감독 변영주와 “음모론을 정말 좋아한다”는 배우 봉태규가 ‘음모론 토크쇼’에서 최고의 공감을 보여주었다.

최근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SBS TV ‘당신이 혹하는 사이’(이하 ‘당혹사’) 두 번째 시즌 종영을 앞두고 두 사람을 만났다.

‘당혹사’는 ‘의심과 솔직 사이’라는 콘셉트 아래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음모론이 펼쳐지는 토크쇼로,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 제작진이 만든 프로그램이다.

음모론을 가벼운 이야기거리로 삼지 않고 매회 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이 프로그램은 시즌 1과 2 모두 평균 3~4%(닐슨코리아 기준)대의 안정적인 시청률을 유지하며 고정 팬층 확보에 성공, 세 번째 시즌을 확정 지었다.

변 감독은 프로그램이 안정권에 들 어선 비결을 묻자 “대본이 기본적으로 정말 좋다. 이전 왜 썼을지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이야기가 된다”며

“SBS 교양제작국의 힘이란 생각이 든다”고 제작진에 공을 돌렸다.

“우리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초능력 부대나 미확인 비행물체(UFO)처럼 재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 두 번째는 음모론을 퍼뜨려 부나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이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지 말하는 것, 나머지 하나는 누군가의 아픈 마음을 전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가 만들어내는 건 각각 다른 의미로 행복하고 즐거워요.”

봉태규도 “음모론이라는 게 안웃거릴 것 같은, 한 소비되고 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야기에 접근하는 방식이 정말 치밀하고 진지해 좋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시작될 ‘당혹사’ 세 번째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아낌없이 드러냈다.

변 감독은 “내년에 새 작품을 할 것 같은데 잠깐 ‘당혹사’에서 제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촬영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고, 스케줄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당혹사’와 ‘그알’, ‘포리에 꼬리



SBS TV ‘당신이 혹하는 사이’의 영화감독 변영주

를 무는 이야기’(이하 ‘꼬꼬무’)가 SBS 교양제작국의 세계관을 만들어냈다며 웃어 보였다.

“‘꼬꼬무’가 옛날이야기를 전하는 할머니와 손녀 콘셉트라면 저희 프로그램은 그 옆방에서 웃돌이하며 떠드는 사촌들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우리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그알’을 찍고 계산 거죠. 이 중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가장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는 사촌들 웃음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웃음)”

Table with 2 columns: '최연태의 오늘의 운세' and '음력9월 10일 천문역원 (062)673-2427'. It contains daily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Table with 2 columns: 'KCTV 광주방송' and '◆이번 주 주요프로그램◆'. It lists broadcast schedules for KCTV and TBN.

Table with 2 columns: 'TBN 광주교통방송' and '◆주요 프로그램 안내◆'. It lists broadcast schedules for TBN.

TV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EBS1. It list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for the week.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EBS1. It list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for the week.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EBS1. It list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for the week.